

최익규 개인전

한 땀, 한 땀

2023.07.19^{wed} ~ 08.07^{mon}

최익규 개인전

한 땀, 한 땀

최		익		규		개		인		전
	ㅈ	ㅇ	ㅈ	ㄱ		ㄱ	ㄹ	ㄹ		ㅣ

최익규 (1961~)

Choi Ik Gyu

충북대학교 미술교육과 및 동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수상

- 2015 올해의 좋은 작가상(청주무심갤러리)
- 2006 김수현 미술상(홍갤러리)
- 1992 중앙미술대전 특선
- 1991 중앙미술대전 특선

개인전

- 1회 최익규 개인전((1996 ,청주박물관)
- 2회 최익규 개인전(2000,청주 예술의 전당)
- 3회 최익규 개인전(2004,신갤러리)
- 4회 최익규 개인전(2010,PICI갤러리)
- 5회 최익규 개인전(2014,코사스페이스)
- 6회 핑크몬스터(2015,청주 대청호미술관)
- 7회 여행(2019,쇄마미술관)
- 8회 포름, 로컬전(2019,청주시립미술관)
- 9회 한땀-한땀 (2023 인사동 충북갤러리)

주요 단체전

- 1987.부산청년 비엔날레(부산)
- 1992.한, 일 신세대 현대미술 교류전(국립 청주 박물관)
- 1993.서울 현대미술제(서울한국문화예술원 미술회관)
- 1997.대청호 국제 환경 미술제(문의일원설치미술)
- 1998.한,일 현대미술 교류전,(림계전-일본 후나바시 시립 미술관, 청주 월천갤러리.98, 부산 시립 미술관. 99)

- 2000.4인 4색전(대전 롯데 화랑)
- 2006.김수현 미술상 수상전(청주 흥갤러리)
- 2011.신미술관 초대전(애프터 입팩트)(청주 신미술관)
- 2012.대청호미술관 초대전
- 2013.후기애스팩트전(쉐마미술관)
- 2014.대청호미술관10주년기념전,보편적 미술관의 서사
(대청호시립미술관)
- 2014.충북민족미술인협회 기획 전국작가 초대전
(ART FESTIVAL, 청주 우민아트센터)
- 2014.제1회청주국제현대미술전(새로운 아시아의 공감과 차이)
(청주 쉐마미술관, 운보미술관)
- 2015.5.8.~6.18. 제56회 베니스 비엔날레 특별전 참가
(점프 인 투 더 언노운) (베니스 팔라초 로레단)
- 2015.올해의 좋은작가상 수상전 청주 무심 갤러리
- 2016.한국 네덜란드 현대미술교류전 (새로운 꿈과 새로운 미래 /
네덜란드 헤이그 QUARTAIR 미술관/
청주쉐마미술관 교환전시)
- 2017. 사라예보 국제 페스티벌(실크로드전) 특별전 참가
- 2017.수잔바토스 최익규전 호주 시드니
- 2017. 실례합니다 (교토, 청주)
- 2018.이것이 청주미술이다(청석갤러리)
- 2018. 권태응, 오장환 탄생 100주년기념전(청주 숲속갤러리)
- 2019.청주시립미술관 소장품전
- 2020. 조우여상처 한중국제미술교류전(쉐마미술관)
- 2021. 후기 애스팩트전(쉐마미술관)
- 2021. 뉴노멀-조각을 조각하다(광주비엔날레관 5실)
- 2022. 후기 애스팩트전 ,새로운 미술의 변종과 변이(쉐마미술관)
- 2021~23. 물을 찾아서 오아시스(청주교육대학교 미술관)
- 2021~23.공통분모 기획전(청주 구연초 제조창 미술관, 숲속갤러리)
- 2023. 국제현대미술전(쉐마미술관)

E-mail : choimyun61@naver.com
 작업실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은행길 56-11

작가노트

새로움을 찾고자 애쓰는 것은 모든 창작자들의 기본적인 욕망일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소위 예술이라는 관습 안에서 새로움을 기대하기란 근본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한다. 계란을 깨듯 그 공간에서 탈출해야만 그 정체와 속성을 깨닫게 되고 ‘그것들을 지우개로 지워버려야 텅 빈 하얀 공간이 생기고 비로소 그 위에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아름답게 일궈놓은 논과 밭을 본다. 그야말로 대지예술, 자연예술, 개념예술이다.

그 논, 밭을 가꾸는데 진심이신 늙으신 나의 부모님이 그려진다. 그분들은 예술이 뭔지, 미학이 무엇인지 예술철학이 무엇인지 모르며 관심도 없다. 계절이 오면 자연의 일부가 되신 듯 밭으로 논으로 나아가 호미질 한땀 한땀 고통을 인내하며 땀을 흘리신다.

소위 미술을 모르기에 그래서 그 과정과 생각과 결과가 진심으로 완벽한 예술작품이 된 것이 아닐까?

삶에 진심인 그분들의 모습을 보며 나의 알량한 예술적이라는 모습이 부끄러워진다.

나는 어머니가 보여주시던 바느질을 서툴지만 긴 시간 반복작업으로 해왔었다.

긴 시간 의미없는 반복적 바느질로 지루하고 그만두고 싶을 때엔 밭에서 고통을 이기시며 땀을 흘리시는 아버지의 호미질을 생각하면서 버틸 수 있었다.

아무것도 아닌 행위의 반복과 시간 죽이기~ 무의미를 향한 미련한 성실함으로 가끔은 나의 인내의 성취감을 가지기로 했다.

이것은 예술일까? 아닐까?

긴 시간의 작업과정 안에 수많은 ‘왜?’라는 질문과 생각과 별것 아닌 일상의 이야기들이 바느질 한땀 한땀에 스며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것은 미술이 아니어서 미술이 된 것이다. 나름 생각한다.

‘참 예술’을 향한 최익규의 자유로운 여행

최익규 작가는 대학 시절 조각을 전공하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중등학교 미술교사로 30년 정도를 지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교사로서의 삶 보다 조금은 독특한 작가로의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최익규 작가는 대학 시절, 스승이었던 김수현, 김영원 교수에게 조각을 배웠기 때문에 비교적 전통적 방법의 조각 기법을 습득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국 미술계가 인정하듯이 조각가 김수현 교수와 김영원 교수는 모두가 전통 조각의 대가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각가 최익규는 스승들과 전혀 다른 유형의 작가라고 생각된다.

벌써 모더니즘 회화가 해체된 지도 백 년이 넘었다. 뒤샹(Marcel Duchamp)이라는 한 작가에 의해 1914년 제시된 첫 번째 ‘레디메이드’는 대량 생산된 「병 걸이」작품이다. 그것은 분명히 대량 생산된 ‘병’을 걸 수 있도록 만들어진 복제품에 지나지 않는다. 모더니즘의 관점에서 볼 때는 회화도 조각도 시(詩)도 음악도 아닌 것은 예술로 인정받을 수 없었던 엄격한 시대였다. 그런 의미에서의 모더니즘은 개별 예술 내에서 가능한 ‘특정한 예술’(specific art)을 말한다. 그러나 오늘날 뒤샹이 성취한 것은 그러한 매체 간의 특수성의 벽을 허문 ‘총체적인 예술’(generic art)로서의 예술이라는 것이 티에리 드 뒤브(Tierry de Duve)의 해석이다. 결국 뒤샹은 레디메이드를 통해서 예술작품을 억압적 패러다임에서 탈출하고 변형시킨 것이다.

근대 조각과 달리 현대 조각은 현대예술의 정신으로 성립되고 있다. 독일의 철학자 아도르노(Theodor W. Adorno)의 현대예술의 미학 이론의 분석은 작가 개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권위주의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인다. 아도르노의 현대예술의 미학이론의 중심을 관통하는 기본정신에는 '불협화', '탈아우라', '탈 심미화', '추(醜)', '비유기성' 따위의 특성을 볼 수 있다.

이렇듯 일찍이 현대예술의 미학의 카테고리는 삶의 흐름이 무수하게 많은 단위들로 잘게 쪼개어져, 다시 말해 시계와 스톱위치로 측정되는 곳에서는 미학의 카테고리는 '불협화'가 된다. 그래서 오늘날 진정한 예술은 '불협화의 예술'이라 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니다. 현대예술의 진리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상정해 볼 때, 첫째, 불협화의 예술은 자신의 '암담한' 성질에 힘입어 그 이름 말마따나 사회를 특징화 할 수 있는 힘을 지닌 유일한 예술이다. 이렇듯 불협화의 예술은 사회의 생생한 표식(標識)이 된다. 둘째, 제도화된 사회에 대한 비타협성이자 사회적 삶이라는 공공제분소에 들어가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불협화의 예술은 이성을 구현하는 것처럼 위장된 사회 뒤에 도사리는 수난과 갈등과 같은 심부(深部)를 겨냥한다.

티에리 드 뒤브와 아도르노의 미학 이론을 전제로 제시하면서 최익규의 작품의 특징과 그의 작품관을 몇 가지 유형으로 해석하고 언급하고자 한다. 최익규는 작가로서 작품에 임하는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말한다.

“저는 어려서부터 농사를 지면서 고통과 행복감에 늘 젖어 있는 부친의 모습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농촌 풍경의 외관을 표현하기보다 부친의 삶을 표현하고 싶었고 그것이 진정한 예술이고 여기서 새로운 예술을 추구하고 싶었다.”

이러한 생각이 작품에 실친된 몇 가지 사례를 밝히고자 한다.

〈작품 사례 1〉 “Travel”, Installation, Tent(transparancy), Toy, Led lights(in the tent),

이 작품은, 필자가 2015년 제 56회 베니스비엔날레 특별전 “Jump into the Unkown” 전시회에 한국 커미셔너로, 최익규 작가를 선정 참가하게 되면서 전시되었던 작품이다. 여기서 최익규 작가는 전시장 ‘Palazzo Loredan dell’Ambasciatore’의 야외 전시장에 ‘원두막’을 설치하고 원두막의 재료로 사용했던 투명 비닐 텐트 위에 수많은 이야기들을 낙서해 놓고 텐트 안에는 다양한 토이들을 설치하고 붉은 전등을 켜놓았다. 그리고 “Travel”이라고 명제를 붙였다. 최익규 작가는 원두막을 자신의 자화상으로 생각하면서 부친에 대한 생각과 자신의 과거를 동시에 회상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작품 사례 2〉 “HA HA HA...”, 밀가루 위에 글씨, Installation, Quartair Residency Gallery, 헤이그, 2016.

이 작품 “하 하 하 시리즈”는 현대미술을 보는 최익규의 미술계에 대한 실망, 정치적 현실과 사회적 현실을 허탈하게 웃으며 실망스러...운 현실을 웃음으로 대칭하고 있는 익살스러운 작품이라 하겠다.

〈작품 사례 3〉 “아버지 전상서”, Letters to parents, 판넬 위에 천에 바느질, 2017~.

이 작품 시리즈는 2017년부터 연작 시리즈로 해오고 있는 작품이다. 〈작품 사례 1〉과 마찬가지로 농사지면서 고생하며 살아오신 부친을 회상하며 만든 작품이다. 작가는 바느질하면서 한 째, 한 땀이 아버지께서 농사지면서 한 땀, 한 땀 고생하신 모습을 화폭 위에 재현하고 있는 것이다. 피카소가 “아이처럼 되고 싶다.” 했듯이 최익규 작가도 화면 구성을 자유스럽게 뒤죽박죽 바느질하며 표현한 것이다.

〈작품 사례 4〉 “뒤상과 그리고 나”, 레디메이드 변기 속에 흙, Installation,, 2023.

이 작품은 2023년 신작이다. 기성품 남성 변기 하나에 내재되어 있는 메타포를 제시하여 일약 세계 최고의 작가로 우뚝 서게 된 뒤상을 다시 해석하면서 최익규만의 독특한 메타포를 제시하고 있다. 뒤상은 ‘남성용 변기’에 여성의 엉덩이가 연상되는 메타포를 제시하고 있는데 비해, 최익규 작가는 뒤상의 변기에 흙을 가득 채워 넣어 백 년 전의 뒤상의 생각과 최익규가 전혀 다른 작가로 해석하게 하는 차이를 느끼게 한다. 참으로 재미있는 기발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모더니즘 미술이 현전성이 절대 공간의 철저한 시간적 직접성의 구현을 통해 ‘무한’(endless)의 세계에 도달하고자 했다면, 포스트모더니즘 미술은 ‘사물자체로서의 미술’ 즉 오브제 아트와 인간 사이에 놓여 있던 억압적 종속적 관계가 풀림으로써 미술이 개방성으로 전환되는 경험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 하겠다. 특히 포스트모더니즘의 해체주의는 인간의 근원적 삶에서 유리되어 있는 철학적 사유를 배제하고 ‘담론’(discourse)을 통하여 ‘참’의 세계에 이르고자 하였다. 미술의 양식이 완벽한 형태를 만들어내던 르네상스의 고전주의적 양식에서 신고전주의를 거치고 19세기의 인상파에 이르면서 견고하던 외형, 외관의 모습이 해체되기 시작함을 보게 된다. 그러나 피카소의 입체파를 거치면서 지금까지 미술의 바이블 같았던 원근법도 명암도 형태의 해체와 더불어 모든 원칙이 해체되어졌다. 선각자들에 의한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어느새 아도르노의 현대 미학 이론처럼 억압되고 종속된 관계가 풀림으로써 현대미술은 그리스 미술과 입체파를 비롯한 추상미술과 비교할 때 확연히 다른 미술로 존재한다. 최익규 작가가 생각하는 자율적 예술이란, 기교를 부리고 욕심을 부린 조형적 작품이 아니라 '완전히' 기존 예술과 맞서는 성향을 갖고 있음을 말한다.

현대예술은 현실을 재현하는데 있어 정신적이고 추상적인 발상을 꺼안는 대신 모방적이고 사실적인 접근을 불허한다. 이렇게 아도르노의 미학이론은 예술과 관련되는 어떤 것도 이제 더 이상 자명하지 않는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듯이 최익규 작가는 텐트 원두막에 낙서를 하고, 밀가루 위에 비웃는 웃음을 드로잉하고, 판넬 위 천에 바느질하고, 변기에 흙을 메우고 하면서, 지금까지의 모든 기존 가치관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예술을 창조하려는 참 예술을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우리 시대의 진정한 작가라고 생각한다.

*Reference : 김재관, 현대미술 Dialogue, 쉐마아트북, 존. A. 워커, 정진국 역, 대중 매체 시대의 예술, 열화당, 현대미술의 쟁점, 서성록, 도서출판 재원.

글, 미술학박사 김재관 / 쉼아미술관장

김사환으로부터의 편지 친애하는 익규 형께.

한 땀 - 한 땀(A stitch - A great sweat)

- 농부가 땅을 대하는 모습에서 예술을 배운다. -

(달팽이처럼 느린 공간이동과 늘어지는 시간의 지난한 숨죽임은 한 땀 한 땀 예술이란 미지의 들판으로 향하고 아버지의 들판은 위대한 땀방울로 생명을 일궈낸다. ‘한 땀’의 느낌과 아버지가 흘렸던 거룩한 ‘한 땀’을 예술의 동력으로 삼는다.)

- 형을 보다-

1982년 제가 미술을 시작한 즈음에 형을 처음 보았지요. 세월이 흘러 이제 40년이 훌쩍 넘어가네요. 한동안 각자의 삶에 집중하느라 만나지 못했던 공백이 크게 뚫려 있었지만 어릴 적 보았던 형의 미술에 대한 집념과 순수한 눈빛을 잊지 않고 있었답니다. 그간 이런저런 형에 대한 소식을 들은 바는 많았지만, 대면의 기회는 많지 않았어요. 최근 들어 형을 뵈 기회가 많아지며 예술에 관한 이야기도 허심탄회하게 나누게 되면서 어릴 적 형에 대한 기억을 더욱 강하게 회상할 수 있었어요. 오랜 교직 생활과 예술 활동을 병행하면서도 처음의 그 모습 그대로 순수한 모습이 남아 있음에 감사한 마음이 절로 들었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하고 인심도 변한다는데 예술을 좇대로 한곳을 바라보며 느린 걸음을 이어온 것을 작품을 통해 느낄 수 있었답니다.

사실 지난 2019년 청주시립미술관서 선보인 ‘아버님 전상서’전을 본 것이 형의 작품을 처음 대면한 것이 되겠네요. 그간 어떤 작품을 해왔고 어떤 관심사로 작품을 이어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형의 최근작들이 제겐 무척 강한 인상을 주었고 은밀한 내공을 함양하고 있었음을 넌지시 헤아려 볼 수 있었습니다.

형의 느린 반복을 통한 성찰, 여전히 말수는 어눌하지만 말을 앞선 사유와 행위는 동양의 사유 방식을 (눌언민행訥言敏行: 말은 어눌해도 행동은 신속하다) 실천하는 게 아닌가 합니다.

말이 거창해 동양의 사유 방식이지만 사실 이러한 태도는 우리 삶에 깊숙이 내재한 것이겠지요. 끊임없는 성찰과 그 과정에서 간신히 나오는 한마디, 예술이 뭐지?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또 이어지는 깊은 침묵과 끝이 보이지 않는 행위는 문채로운 언설을 봉인하고 오히려 어눌함을 예술의 뼈대로 삼아 질박質樸을 구현하려는 것처럼 보이네요.

사실 형은 참, 말을 못해~ 그 허다한 철학적 변명도 유행하는 말씨도 SNS도 핫한 정보마저 취약하고 어눌한 말씨로 늘 이러저러한 예술가들에 치여 얻어터지기 일쑤니 말입니다.

그러나 약간은 느려도 형이 예술세계에서 걷는 걸음은 힘이 있어요. 이것이 형의 천성일까요. 형만의 중심이 있는 거겠지요. 적어도 현대미술의 미끼에 덜 넘어 간 것으로 보입니다.

-형을 듣다-

2019년 '아버님 전상서'전을 기쁘게 봤지만, 작가와의 대화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작품에 대한 형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 농사와 그림의 관계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납니다.

시골의 빈농에서 태어나 자란 형이라 그런지 무척 상세한 이야기였지요.

농사는 말이지 고통의 반복이야.

손이 곱아들고 무릎 허리가 다 뒤틀려도 그냥 또 밭으로 나가. 그리고 표도 없는 행위를 또 해. 매일 그렇게 해.

아버지한테 말을 하지...(아니, 왜 그렇게 몸이 안 좋으면서도 그 힘든 일을 계속하셔~ 이젠 편하게 쉬시면서...)

무슨 얘긴지 알잖아? 우리가 부모님께 흔히 하는 핀잔 섞인 말.

그럴 때면 아버지 말이 없으셔~ 그리고 한심한 듯 바라보시곤 먼 허공으로 눈길을 돌리고 날 쳐다도 안 봐.

나도 농사일을 이해해. 가난했지만 아버지 엄마의 고된 나날로 내가 이만큼 컸고 호사스럽게도 예술을 하고 자리를 잡고 나도 또한 늙어가고 있어. 그래 ~ 아버지 힘든 일 이제 그만하시라고 안쓰러운 맘을 전한다는 게 늘 큰소리를 일으키지.

참 희한해.

유전인지 각인된 건지 나도 아버지와 똑같이 농사일을 하고 있어.

캔버스에서 말이야.

내가 예술에서 늘 찾아 헤맨 게 뭘지 알아? 가능한 무의미한 일이야.

남이 이야기하는 철학도 내 것이 아니고 설령 내 것이라 해도 예술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는 무의미하단 말이야.

그래서 가능한 가장 쓸모없고 못난 예술, 미술교육을 받은 내 속에 고정된 관념을 파괴할 수 있는 그런 것, 조금이라도 능숙한 것에 대한 외면, 그래서 난 내가 아닌 나를 찾으려고 바느질이란 행위를 선택했지. 바느질은 무척 지루한 반복의 과정이야. 내가 선택한 바느질은 목적이 배제돼있어. 무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짓'만 있으면 되거든. 옷을 만드는 실용성도 없고 그렇다고 엄청난 미적 이미지를 만드는 것도 아니야. 무의미한 반복의 한 땀 한 땀을 통해서 진정한 나만의 것을 찾아보려 했던 거야.

조각이나 회화는 나에게 익숙해서 빨라.

그런데 바느질은 아무리 빨리하려 해도 한계가 있어. 꼼짝없이 한 땀 한 땀 움직일 수밖에 없어. 느리지. 그 느낌 속에서는 온갖 갈등이 다 보여.

먹고사는 문제, 시집간 딸, 권옥이 엄마랑 싸운 일, 텃밭에서 풀과 씨름한 일, 정체성의 문제, 사람들과 대화한 내용, 텃밭 가꾸는 일로 내가 예술가가 아니고 농사꾼이라고 퍼진 소문, 화딱지, 나의 무지, 나는 누구지, 내 행위는 무얼 하려는가, 남들이 이해할까, 팔릴까, 에이~ 내 좋아서 하는 일인데, 그래도 쪽팔림 당하지나 않을까, 농사일하시는 아버지, 인자하고 지혜로운 어머니, 똥구멍이 찢어 질 듯한 유년기의 가난, 눈물, 형제들, 아버지의 신앙, 갈등, 등 뭐 이런 수없이 많은 상념이 머릿속을 가득 메우고 또 사라지고 또 가득 메우기를 반복하지.

바늘 끝의 움직임은 더럽게 느린데 생각은 번개처럼 나타났다 사라지거든.
어떤 것은 반복하는 중에 씻겨 나가기도 하는데 어떤 건 오래 남아.
특히 아버지 엄마의 한평생 반복된 농사일에 대한 기억은 오래 남아. 수많은
생각이 털려 나가도 그것만은 내 바느질 속에서 끝까지 살아남아. 아마 내가
그림을 그리는 상념 속에서 부모님이 맨 끝에 남듯이 아버지 엄마도 땡볕의
밭에서 호미질 할 때 그렇지 않았을까?

그냥 해왔으니까 하는 거여~ 힘들다고 땅을 놀리남? 라고 말씀하시지만, 오
직 간직한 한 가지 생각은 ‘자식’이란 걸 난 눈치 챌 수 있었어. 고달픈 나날의
끝에 남은 한가지 마음이시지.
뽀족한 호미 끝으로 땅을 툑툑 치며 너른 밭을 매는 반복은 아마 무수한 상
념을 달래는 수행이셨을 거야.
그러니 관절염으로 뒤틀리는 육신의 고통과 마음속 갈등을 버텨 오실 수 있
었겠지.
내가 작품 활동하는 것은 이도 안 났어.

전시회에 부모님이 오셔서 작품을 보시고는 영 탐탁지 않으셨나 봐. 보기 힘
든 것을 간신히 보신 양 애써 무표정으로 감추셨지.
밥은 먹고 살 것 냐? 돈은 되냐?
말이 턱 막혀 간신히 예술을 돈 보고해요? 라고 투명스럽게 이야긴 하지만
아킬레스건이야.
잘나가는 동료 예술가를 볼 때면 애써 예술의 진정성을 운운하다 한방 얻어
터지기 일쑤데 딜레마야.

이럴 때 보면 아버지 빈농의 소출과 비슷해. 죽자고 농사를 지었는데 노력에 비해 턱도 없는 수확에 입은 많고 하니 얼마나 진땀이 났겠어?

내 작업도 꼭 그 모양이야. 아버지 농사에 비하면 그 그림자도 따라가지 못하는 정도지만 나름 꾸준히 왔는데 뭐하나? 제대로 된 게 안보이니 진땀이 나는 건...

그래도 또 천형처럼 반복되는 헛짓은 캔버스를 나름 수놓아 잠간의 행복감을 느끼게 하지.

새벽부터 한낮이 오기 전까지 밭을 매고 굵은 등을 펴며 아~ 잘했다~라고 외치던 아버지의 일성이 내가 그림을 마치고 난 행복감과 같지 않을까?

현대 사회에서 부모님 농사 이야기를 이렇게 지루하게 이야기한 것은 과정 중심으로서의 노동, 무 목적성을 띤 즉 현재성(即現在性)이 맞닿아 있기 때문이야. 그 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상념과 의지의 갈등, 그리고 해소, 뭐 이런 유사성의 중첩이 무심한 궤적으로 자연스럽게 남는 것이 내 예술의 근간이 되었으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작품에는 특별하다 할 만한 게 없어. 작업행위 과정에서 생각을 가능한 지워 내려 하거든. 그리고 남는 건 행위의 중첩뿐이었음 좋겠고...

그것만이 순수하게 남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걸 사람들이 봐주겠나?

-형을 진술하다-

작업의 반복과정에서 일어나는 생각의 점멸이 바느질의 성격과 잘 맞아 보여요. 특별한 이미지에 대한 계획이 없다면 무위의 바느질은 공백 속을 노니는 작은 생명체의 궤적과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그곳에선 공간과 시간이 무의미하겠어요. 왜냐면 공간과 시간은 목적성의 좌표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공백에서의 움직임은 무목적의 존재면 충분하거든요. 오직 살아 있음의 흔적만 남겠지요.

화면에서 바늘이 뒷면으로 들어가 사라지고 다시 앞면으로 나오기를 반복하는 것은 막연한 공백(빈천)에 시간의 좌표를 만들어 가고 비로소 형만의 공간을 획득하는 것 아닐까요. 형의 작품에서 움직이는 바늘의 궤적은 마치 원시 시원의 바다에서 어떤 미세한 유기물이 최소한으로 꿈틀거리는 율동을 연상케 합니다. 고요한 생명의 흔적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 가득한 철학적 메시지, 우수한 지성, 열심히 작업을 한다는 허위 등으로부터 나오는 문채로운 수사나 과장보다 가능한 순수행위로의 접근은 비록 미술사 전반에 이미 나타난 현상이었지만 지금도 꽤 유효하고 근본을 찾아가는 길잡이가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형의 작업 과정은 유효하고 매력적이네요.

자신만의 길을 찾는다는 것, 꽤 위험한 맞닥트림을 감수해야 한다고 봅니다. 옛날 옛날, 꿈꾸는 달팽이가 있었답니다. 온종일 걸어도 몇 자도 못 움직이면서 저 남쪽의 바다를 보러 간다고 길을 나섰답니다. 주변의 친한 곤충과 풀벌레들은 만류했고 다른 풀벌레들과 새들은 비웃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팽이는 새벽에 길을 떠났지요. 그리고 해가 짙은 점심때에 이른 곳은 사리문 옆 썩대궁이의 끝자락이었어요. 물론 바다는 보이지 않았어요. 달팽이는 썩대궁이의 끝자락에서 바다를 꿈꾸며 말라 죽었지요.

자신의 분수를 모르는 달팽이의 과한 욕심이 불러온 비극이라고들 말하는데, 목숨을 건 꿈과 탐욕은 다르겠지요. 어떤 사람은 꿈을 좇고 어떤 사람은 욕망을 좇고 어떤 사람은 탐욕에 물 들다 인생을 망치기도 하겠죠. 예술은 꿈을 좇는다는 당연한 진실(?) 아래 많은 예술 달팽이들이 점멸했고 또 그렇게 형이라는 한 달팽이가 가고 있어요. 그렇게 가다 흔적 없이 사라질 수도, 위대한 달팽이로 남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꿈은 보다 큰 자기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지 세속적 영화를 위한 탐욕의 여정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꿈을 좇는 사람에겐 환희만 있지 두려움은 없답니다.

형의 바느질은 달팽이의 여행처럼 무척 지난한 여정이예요. 움직임도 최소한으로, 호흡은 멈춘 듯, 귀에선 이명이 울릴 정도로 집중된 반복이라 봅니다. 그렇게 내면으로 고요하고, 집중되고, 느려야만 '한 땀-한 땀' 진실하게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형의 바느질을 잘 보면 작디작은 바늘 끝의 점하나에 마음을 매단 듯 보여요. 그 작은 바늘 끝이 형이 추구하는 형의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작은 곳에 가장 큰 것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 하나의 바늘구멍은 가장 큰 형의 우주가 되겠죠. 그곳에는 형의 의지, 사유, 상념 등 모든 작용의 유기물들이 들어있기 때문이예요. 구멍에서 구멍으로 연결하고 또 연결하여 나타난 긴 궤적의 끝매듭에서 긴 숨을 빼며 등을 펴겠죠. 그리고 여린 인-연(因緣)의 자국 끝자락에서 껍데기만 남기고 등선탈 각(各)登仙(脫殼)한 달팽이 모양처럼 형은 사라지고 남은 한 땀 한 땀 동선만이 형을 대신하겠죠. 마치, 잘 가꾸어진 아버지의 밭처럼 형의 캔버스도 그렇게 가꾸어져 있겠죠. 훌륭한 농사꾼의 밭에 잡초가 없듯이 훌륭한 예술가의 그림에도 잡됨이 없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것이 형이 지향하는 세계가 아닌 가 감히 생각해보아요.

선禪에 대해서 일도 모른다는 분이 하루 종일 앉아 바늘 끝으로 잡념을 꽃아 내치는걸 보면, 앓을 내려놓고 무지로 향하는 여여如如함 혹은 노자가 말한 무지 무욕無知無欲의 경지가 느껴지게 합니다.

언젠가, 온전히 마음으로 향하는 길, 그 하나만 보고 가겠다며 다른 모든 지적인 것을 쌓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적이 있었죠. 예술의 버릿줄을 잡으려는 의지로 이해했답니다. 마음의 심지가 그것이겠죠.

예술사에 족적을 남긴 많은 분들의 태도도 그러했다고 봅니다. 자신만의 마음을 향한 여행은 무척 어려운 여정이지요. 자칫 빼딱하여 미치광이가 되기도 하고, 현자가 되기도 하고, 유명인이 되기도 하고, 바보가 되기도 하고, 사기꾼이 되기도 합니다.

예술을 할수록 자기의 껍데기가 더 화려해지기도 하는데 그것을 던져 버리기가 어디 쉽 나요? 살다 보면 허위의식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헛꿈을 꾸기도 하지요. 완전히 순수하기는 힘 들 겠지요. 그래서 정진이란 말이 더욱 숭고하게 와 닿는 것 같아요. 항상 경계하고 진정성 있는 그 무엇에 닿으려는 노력이 작업의 뼈대가 되겠지요. 형은 무위無為의 바느질을 통하여 형의 성품이 드러나는 뼈대를 세우고 있어요. 단순한 반복 노동(?), 침묵, 느낌을 통해 얻어낸 고졸古拙한 캔버스는 아버지의 들판과 같겠지요.

-형에 말하다-

형의 나이 63, 이제 시작이네요. 말단의 촘촘하고 자잘한 그물망을 버리고 굵직한 예술의 버리를 잡았으니 삶에서 그 어느 것이 형의 예술에 걸림돌이 되겠어요.

시작이네요.

이번 서울전시를 축하드립니다.

마음 설레고 기쁘기도 하고 약간은 두렵기도 하겠지요. 전시를 앞두고 항상 그러하듯 부끄럼이 도사리고도 있을 텐데 까짓거 얻을 게 없는데 뭐가 꿀릴 게 있겠어요.

한 땀이 한마음인데 뭐 걸릴 게 있겠어요.

부디‘한 땀’의 진정성이 크게 울리는 서울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3. 7. 8. 사환 拜上

어떤흔적 2

2023, 120x180cm
광목천에 바느질 후 채색





아버진 위대한 예술가

2023, 120x180cm
광목천에 바느질 후 채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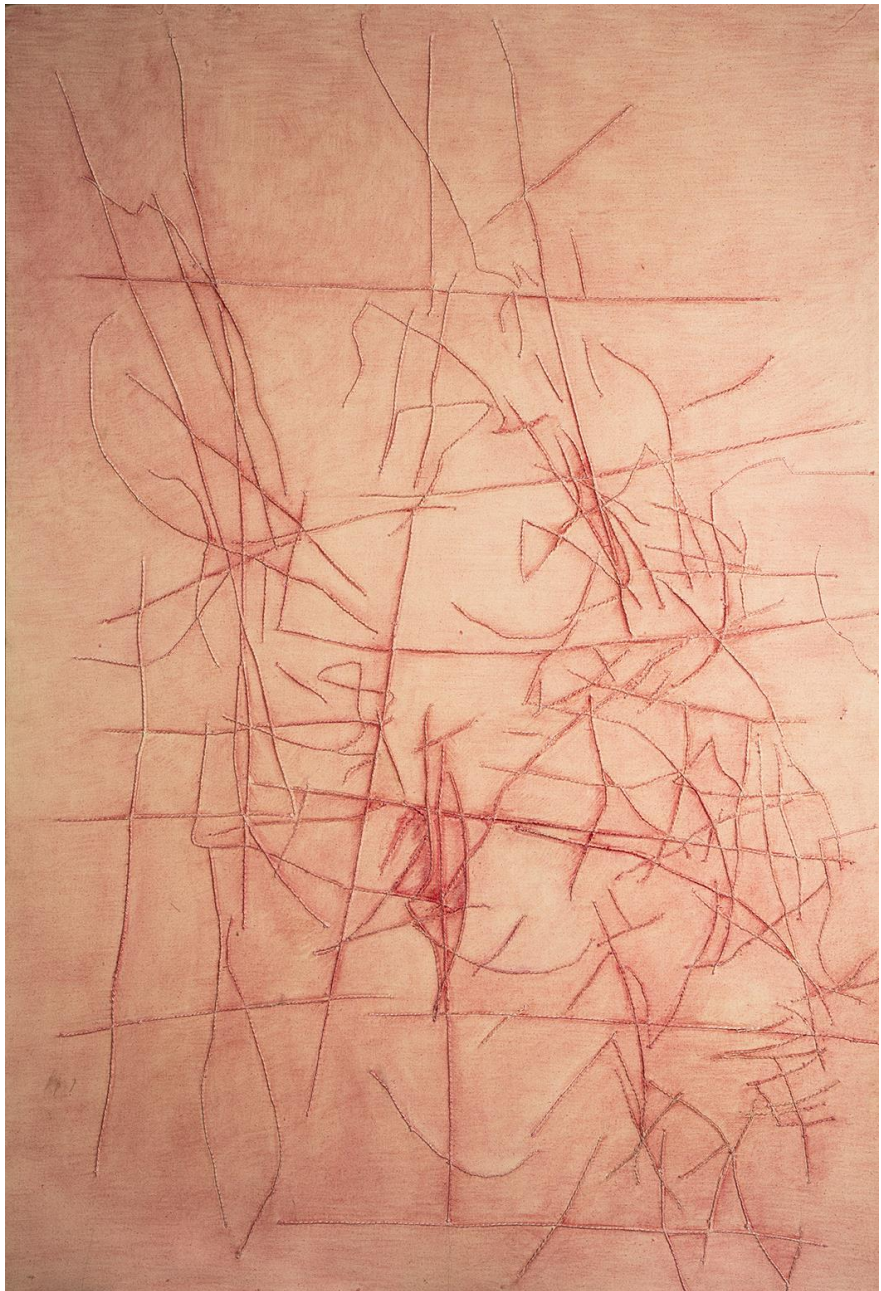


아버진 위대한 예술가4

2023, 120x180cm
광목천에 바느질 후 채색

자화상1

2023, 120x180cm
광목천에 바느질 후 채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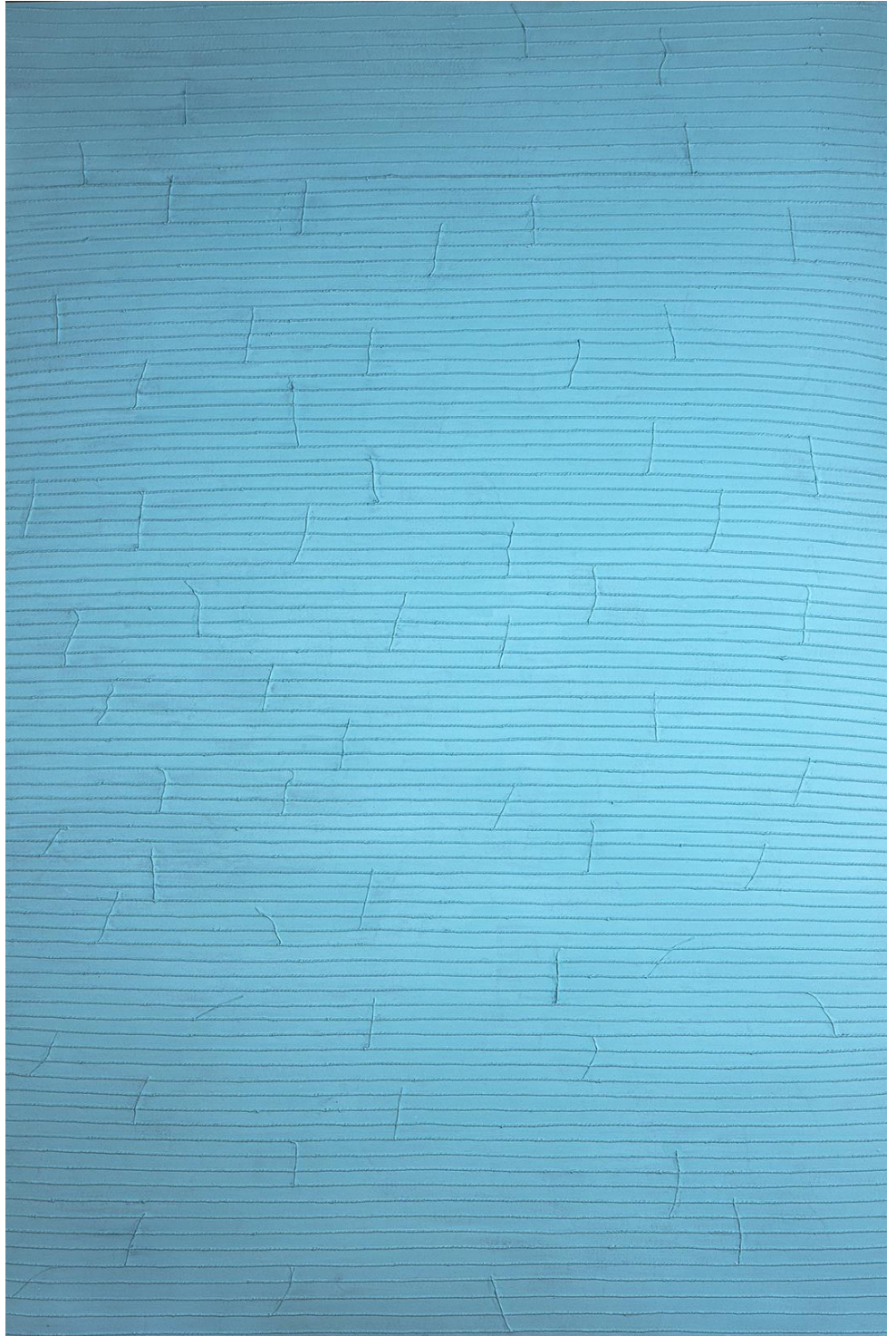


아버지 전상서3

2017~2019, 210x140cm
천에 바느질

아버진 위대한 예술가2

2023, 140x200cm
광목천에 바느질 후 채색





어떤흔적 4

2023, 120x200cm
광목천에 바느질 후 채색



즉흥3

2023, 80x100cm
광목천에 실 채색



아버지 전상서4

2017~2019, 210x140cm
천에 바느질, 판넬



아버지 전상서5

2017~2019, 210x140cm
천에 바느질, 판넬



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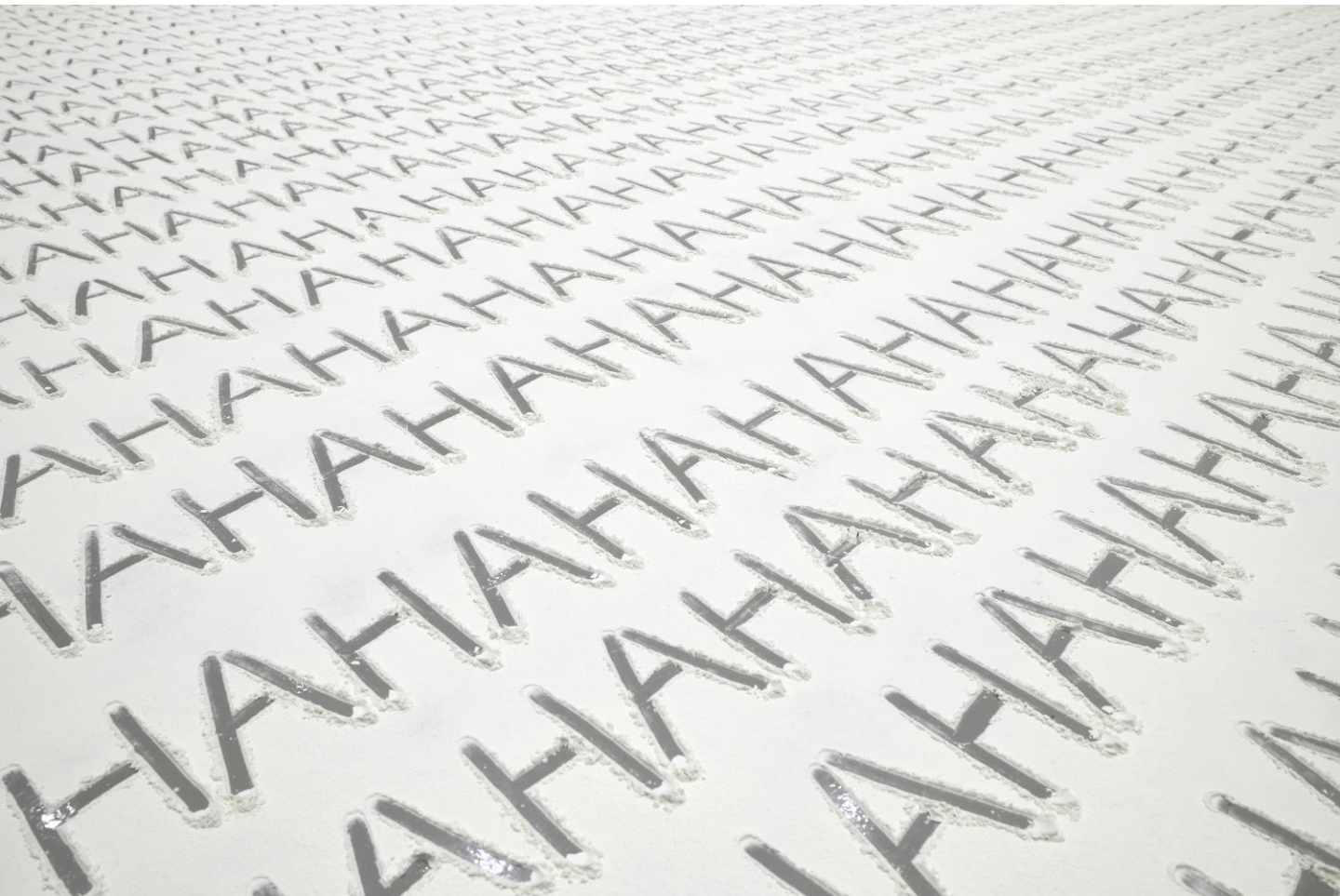
2023, 200x120cm

광목천에 바느질, 숨, 모터, 센서



한 땀 - 한 땀
(A stitch - A great sweat)

2019~2022, 가변설치
광목천에 바느질



하하하하

2019, 가변설치
밀가루에 손가락으로 쓰기
사진 청주시립미술관



아버지에게

2018, 가변설치
광목천에 바느질



발아

2015, 가변설치
광목천, 솜, 모터, 센서



여행

2015, 300x300x30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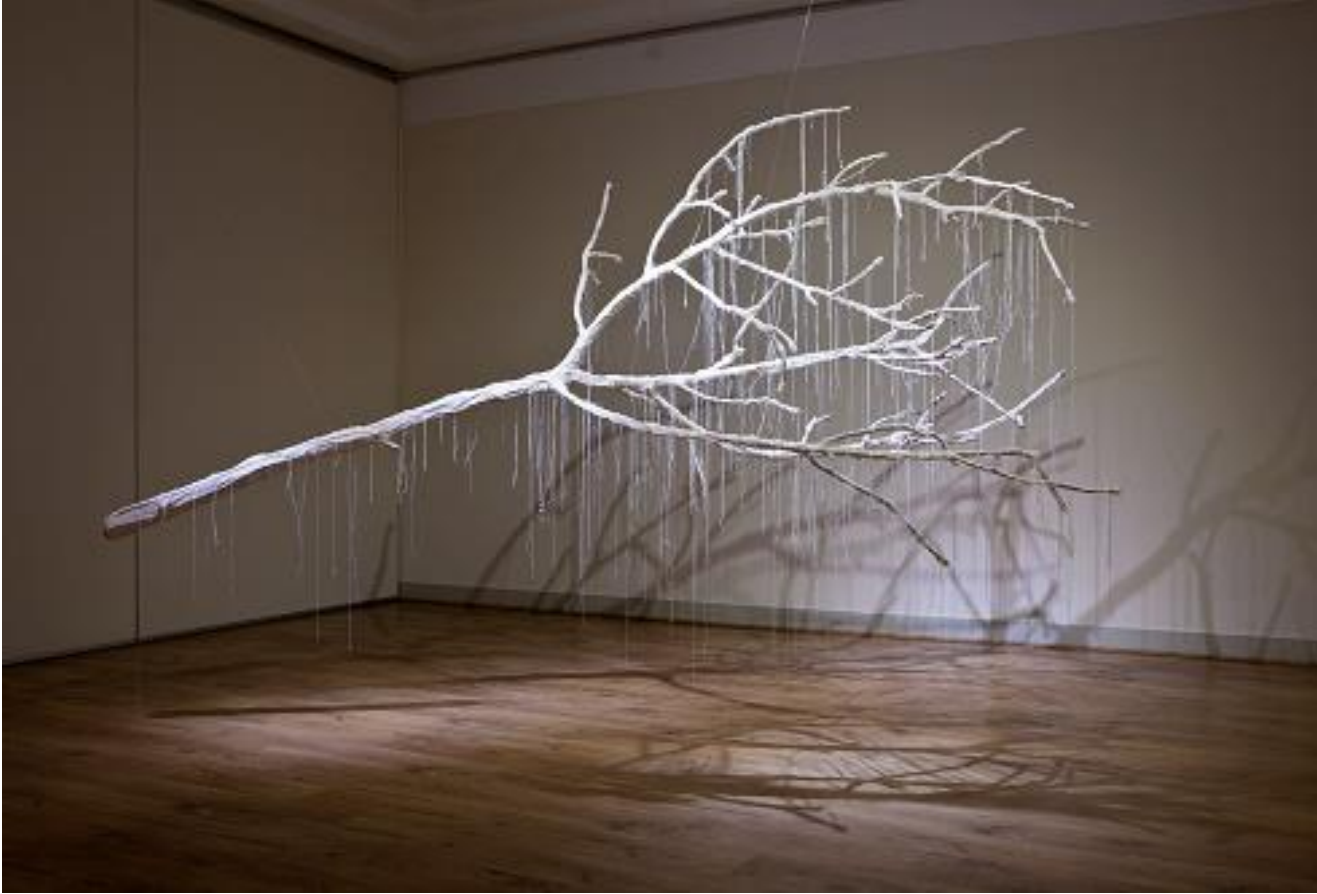
알루미늄, 비닐, 페인트

(베니스 비엔날레 특별전 출품작)



바라보다

2014, 가변설치
광목천, 솜, 모터, 바느질



덕수가 잘라버린 호두나무

2014, 가변설치
나무에 광목천, 바느질



핑크몬스터

2014, 가변설치
광목천, 솜, 바느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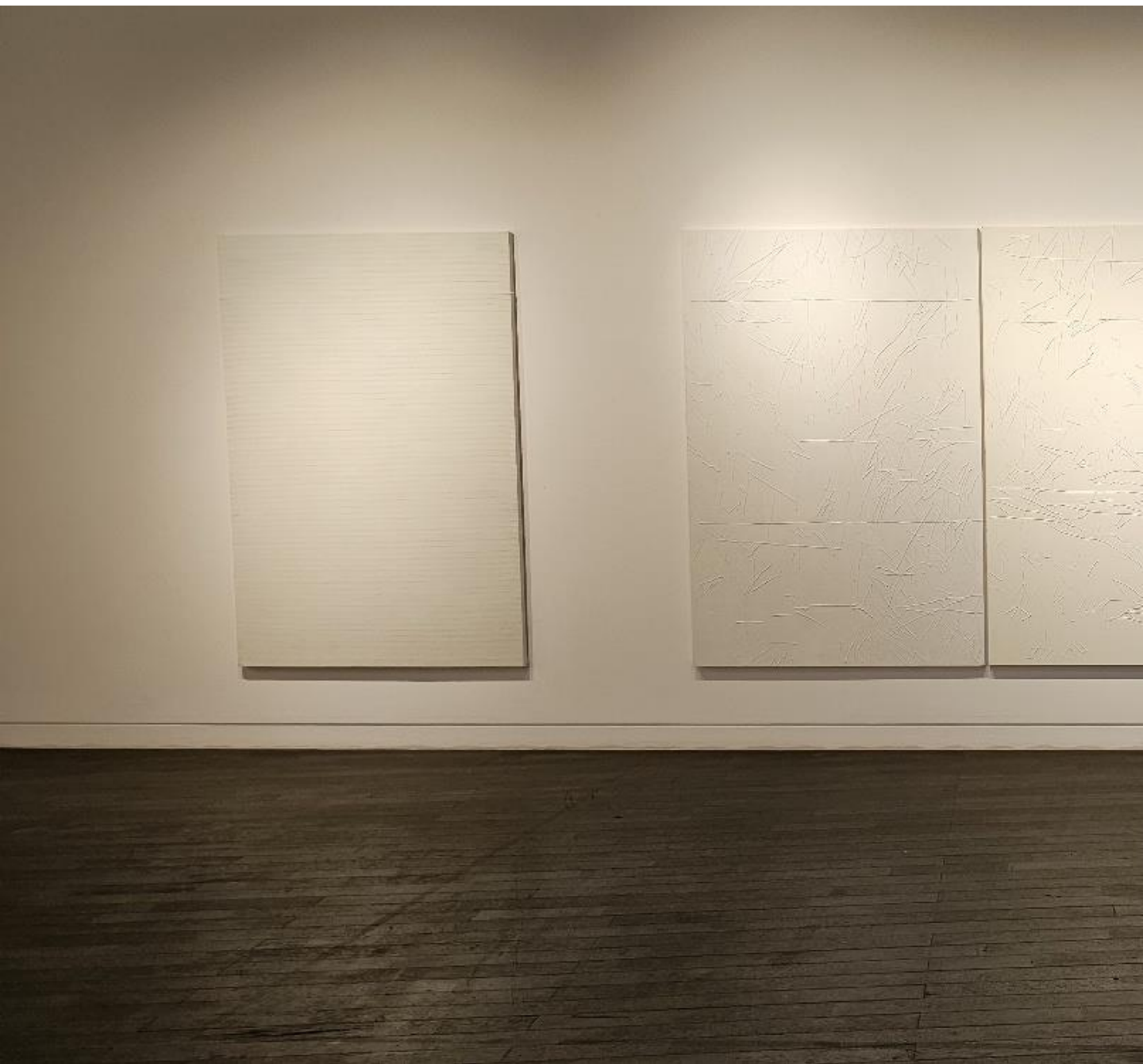
뒤상 그리고 나

2004~2023, 가변설치
변기, 흙, 풀



우울증

2004, 가변설치
천, 솜, 바느질



전시전경_충북갤러리_2023





전시전경_충북갤러리_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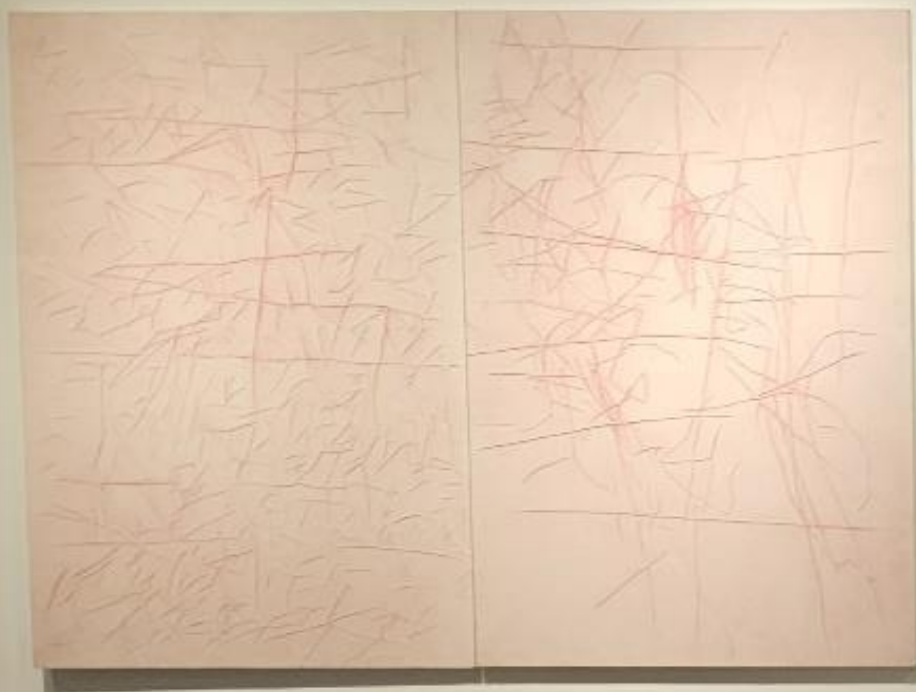
전시전경_충북갤러리_2023





전시전경_충북갤러리_2023





전시전경_충북갤러리_2023







차		바		개	러	러	리
	오	기		리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길 41-1 인사아트센터 2층